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 한 자기긍정성의 매개효과-*

현 경 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

[요 약]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두문화정체성이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자기긍정성을 도와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편의표집에 의해 서울과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총 281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으로 구성된 두문화정체성은 예측대로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로 구성된 자기긍정성을 도우며 이를 통한 경로와 직접 경로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였다. 측정변수들을 이용한 탐색적인 경로분석에서 각각의 문화정체성은 관점다각화를 통해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과 연관되었고, 자기수용은 예측대로 결혼만족을 도와 결혼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지만 결혼안정에 대한 자기조절의 예측된 정적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관점의 다각화는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직접 돕기 보다는 응답자들의 자기수용과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를 돕는 경로로 그러한 측면을 강화하였다. 한국문화정체성이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정적효과는 관점다각화에 따른 자기수용과 배우자와의 의견일치에 의해 매개되었고, 모국문화정체성은 그러한 매개경로와 함께 직접 결혼만족을 돕는 한편 결혼안정을 낮추어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효과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하였으나 효과분해에서 각 문화정체성이 결혼의 안녕을 돕는 총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두문화정체성이 결혼이민여성들의 긍정적 태도와 결혼의 안녕을 도울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가 논의되었다.

주제어: 두문화정체성, 문화적응, 관점의 다각화, 자기긍정성, 결혼만족, 결혼안정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7-B00461). 이 논문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1. 서론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국내로 이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모국문화와 언어 및 의미체계가 다른 배우자 나라의 문화를 오가며 대부분 정도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두문화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¹⁾ 기존문헌을 보면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문화와 이주국의 문화를 지지하는 정도나 내재화하고 인지하는 방식이 다양하며(LaFromboise, Coleman and Gerton, 1993; Berry, 1997; Benet-Martinez, Leu, Lee and Morris, 2002),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으로 이들의 두문화정체성(bicultural identity)²⁾이 보다 조화를 이루거나 갈등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Cheng, 2005). 게다가 개방적인 사회환경(Sibley and Liu, 2007)과 지지적인 가족(Britto and Amer, 2007)이 두문화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이민국가에서는 주류문화와 소수 이민자 문화의 병존, 즉 문화통합을 이루어낸 두문화인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LaFromboise et al., 1993; Berry, 1997; Berry and Sam, 1997). 따라서 국내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착과정에서 배우자와의 문화차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실제로 두문화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한국화”를 기대하는 배우자와 시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전반의 분위기 속에서(김지은, 2007) 가능한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만일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두문화인으로서의 삶이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가능하다면, 이들의 모국문화정체성과 한국문화정체성의 수준은 각기 어느 정도이며, 이 여성들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두문화정체성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사회적 안녕, 특히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생활의 안녕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의미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까지 국내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된 실태조사(예: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보건복지부,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와 결혼과정이나 결혼생활에서의 경험 및 적응문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예: 강유진, 1999; 위홍, 2003; 윤형숙, 2004; 이해경, 2005;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한건수, 2006). 그러므로 연구결과도 결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가족갈등, 가정폭력, 문화적 갈등과 소통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태 파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만족(양순미·정현숙, 2006; 김연수, 2007), 결혼의 질과 안정(서혜정·김형모, 2009), 부부

1) 이 부류의 결혼은 결혼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남성들에게 국제결혼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1990년대 이후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제결혼이 본격화된 2000년에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 건수는 7,304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2.2%를 차지하였으나 10년 후인 2010년에는 약 4배에 달하는 26,274건으로 전체 결혼 건수의 8.1%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2) 심리학 및 사회복지학 논문들에서 bicultural에 대한 번역은 정진경과 양계민(2004)이 양문화로 번역한 것이 유일해 보인다. 대안적 번역으로 이중문화가 떠오르나 이는 두문화가 독립적으로 공존하는 측면 보다 겹치는 면을 부각시키고, 양문화는 두문화보다 합의와 의미전달 측면에서 명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이 논문에서는 두문화로 번역하였다.

갈등(김오남, 2006) 등 다문화부부들의 결혼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 있지만 대부분 관련요인들을 밝히는 연구로 이 여성들의 결혼의 안녕(marital well-being)에 이르는 과정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문화적응이나 문화정체성에 관한 연구들도 문화적응스트레스(권복순, 2009), 정신건강(양옥경·김연수, 2007), 결혼만족(권복순·차보연, 2006), 문화적응유형(최혜지, 2009) 등과의 관련요인 파악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외에 질적연구가 소수 있을 뿐이다(예: 박주희·정진경, 2007).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태파악, 결혼생활의 경험과 적응이슈, 결혼의 질과 문화적응에 관련된 변인들의 규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실태 파악을 위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 동안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지원의 대상”으로 부각시켜 대상화하는데 기여한 측면이 있고 이들의 강점, 잠재력, 긍정성 등을 간과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더욱이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진입한 한국의 인구학적 지형변화로³⁾ 다문화인이나 이주민의 사회심리적 경험을 알아보는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어 다문화적 경험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 두문화정체성의 기능과 역할을 밝히는 연구의 의미가 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이혼율이 급증하고(통계청, 2011)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혼해체 방지와 결혼안정 촉진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가 드문 점을 고려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강점과 긍정적인 결혼과정을 밝히는 연구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두문화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점에 주목하여, 이 여성들 사이에서 발달할 수 있는 두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 즉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도와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문화병존(biculturalism)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두문화정체성이 높은 이들은 각각의 문화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상황에 맞게 문화들을 전환시키고(Benet-Martinez et al., 2002; Cheng, 2005), 단일문화인들에 비해 인지적 복잡성이 높다(Benet-Martinez, Lee and Leu, 2006). 이러한 두문화정체성으로 축적될 수 있는 인지적 성향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문화충돌 없이 결혼생활을 보다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유용하여 이들의 결혼만족이나 결혼의 안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두 개의 문화활용 능력이 뛰어난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문화충돌이나 가족갈등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며 여러 입장과 시점에서 생각해볼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인지적 활동은 이 여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억제하며 상황에 맞게 자신을 수용하고 조절할 수 있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현경자, 2009). 따라서 두문화정체성이 관점의 다각화를 격려하며 결혼이민여성들의 자기긍정성을 도와 궁극적으로 결혼의 안녕, 즉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정체성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권복순·차보연, 2006)를 보면,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문화정체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국문화정체성이 낮

3)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그 비율이 전체인구의 5%에 달할 것이라 하며, 요즘은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있다(통계청, 2008).

4)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부부의 이혼 건수는 2004년 1,567쌍이었으나 2010년 현재는 7,904건으로 6년 사이에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변수들의 설명력이 타 변수들에 비해 매우 높아 문화정체성과 결혼 만족의 관계가 중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화정체성을 다차원으로 개념화하여 독립변인들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효과가 단일차원의 정체성 양극에 위치한 것처럼 상반되어 문화정체성의 병존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게다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 안녕과 관련된 연구들은 결혼만족을 주로 다루고 예외적으로 결혼의 질과 안정을 함께 고려한 연구(서해정·김형모, 2009)도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의 관계가 결혼대안의 수준이나 결혼해체의 장애요인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여 결혼의 안녕에 이르는 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결혼이민여성들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두문화정체성과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자기긍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들이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과정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국문화정체성과 한국문화정체성을 측정하여 그 수준을 조사하였고, 둘째, 두문화정체성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의 안녕에 관련되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정체성이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로 구성된 자기긍정성을 매개로 결혼의 안녕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 문헌고찰

1) 문화정체성의 개념과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두문화정체성 발달

인간은 누구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문화적 존재로 거듭난다. 나는 누구이고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사람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며(Fiske, Kitayama, Markus, and Nisbett, 1998) 특정 “민족문화집단의 일원으로 자기 자신을 범주화하고 동일시하는” 문화정체성(정진경·양계민, 2004: 120)을 키워간다. 이러한 문화정체성은 자기정체성의 한 측면으로 간주되고(Ryder, Alden and Paulhus, 2000) 개인이 자신의 민족문화와 그 구성원에 대해 갖는 소속감과 연대감 및 그에 따라 촉발되는 자부심, 애착, 믿음 등의 긍정적 감정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Phinney and Devich-Navarro, 1997).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이 삶의 뿌리를 타문화권으로 옮기는 영구적인 국제이주민들은 정착국의 문화적응이라는 과제에 직면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문화적응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를 뜻하며(Gibson, 2001), 정착국에서 살아가는데 적절한 행동과 사고양식을 습득하고 선택하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태도, 가치관, 자기해석, 문화정체성, 행동 등의 변화를 포함한다(Ryder et al, 2000). 서구의 문화적응 이론을 보면 초기에는 문화적응이 단선적으로 개념화되어 주류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질수록 이민자의 원문화가 약화되어 상실될 것으로 보는 단일차원의 관점(Gordon, 1964)이 우세

하였다. 하지만 문화적응이 그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발전하면서 이민자의 모국문화 유지와 주류문화 적응을 별개의 차원으로 보는 이차원적 관점이 현재는 우세하다(Ryder et al., 2000). 무엇보다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이민자들이 원가족과 모국인, 모국문화 등과 보다 쉽게 접촉할 수 있어 원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용이하고, 미국과 같은 이민국가의 경우 저개발국가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이 소수민족 집단을 형성하여 원문화의 보존 및 전파를 도우므로 다차원적 문화적응이 가능하다(Schwartz, Zamboanga, Rodrigues and Wang, 2007).

이민자들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원문화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민족고유성을 보존하는 것과 주류사회에 참여하며 타민족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협상해야 한다. Berry(1997)의 문화적응 모델에 따르면, 이 과정을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문화적응 전략은 네 가지 유형, 즉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분될 수 있다. 두문화정체성은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주류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문화통합의 결과물로 볼 수 있는데,⁵⁾ Roysircar(2003)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문화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 두문화정체성이 강화된다고 본다. 따라서 두문화인 또는 다문화인은 둘 이상의 문화를 넘나들며 생활하는 자로 모국문화(원문화)와 이주국(주류사회)문화의 일원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고 각 문화권 내에서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되는데(Ford, 2006; Santana, 2004), 이런 자들 사이에서 두문화정체성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국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을 다룬 질적연구를 보면, 이들이 선택하는 문화적응 전략은 조사시점에서 대부분 동화와 통합으로 나타나고(박주희·정진경, 2007), 이를 유형화한 양적연구에서는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통합유형과 주변화유형이, 그리고 국내거주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동화유형이 우세하다(최혜지, 2009).⁶⁾ 반면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조선족 기혼여성들에 대한 질적연구에서는 노동자, 아내, 어머니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여성들의 삶이 복잡하고 중층적이며 문화정체성 또한 한국사회에서의 경험이 더해져 보다 복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이혜웅,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적응을 위해 이주민이 선택하는 전략이 각자의 상황, 이주동기, 정착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Berry(1997)의 네 가지 적응유형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적 또는 사적 상황에 따라라도 적응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정진경·양계민, 2004; Rudmin, 2003).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발적으로 영구체류를 목적으로 이주한 부류에 속한다. 이들은 단신으로 한국인 가정에 편입되어 한국인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살아가게 되므로 주류사회 참여를 포기하며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분리전략을 선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임의로 구분하는 양적연구(최혜지, 2009)에서는 주변화유형과 분리유형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지만 여성결혼이

5) 동화유형은 모국문화 유지를 포기하고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분리유형은 모국문화를 유지하며 주류사회 참여를 포기하고 끝으로 주변화유형은 두 문화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 유지에 소극적인 특성을 보인다.

6) 이 연구는 새터민을 포함한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참여자들의 결혼상태, 국내 거주기간, 연령, 이주목적과 배경 등이 다양하여 연구결과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 관점에서 적절히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가능한 주요결과만 언급하였다.

민자의 문화정체성을 질적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분리유형이나 주변화유형이 드물다(박주희·정진경, 2007). Rudmin(2003)의 지적대로 한 개인이 모국이나 이주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화와 생활기술을 습득해야 하므로 주변화유형은 문화접촉과 습득을 포기한 자로 보기 보다는 양립할 수 없는 두문화 사이에서 문화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거나 두문화정체성이 낮은 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민자들이나 다문화사회의 소수민족들은 정도, 방식,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두문화인의 특성을 갖고 있고(Noh, 2004) 문화통합을 선호하여(Berry and Sam, 1997) 문화정체성의 통합이나 병존이 보다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학자들에 따르면 문화정체성은 자기정체성처럼 다면적이고 둘 이상의 문화정체성이 공존하며 상황에 맞게 교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LaFromboise et al., 1993). 이 관점을 지지하는 국내 결혼이민여성들의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한국식으로 남편의 체면을 존중하는 행동을 하고 부부끼리 있을 때는 문화틀을 전환하여 이주여성이 모국에서 내재화한 평등주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발견된다(박주희·정진경, 2007). 따라서 국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여성들 사이에서도 정도, 방식,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두문화인으로서의 특성과 정체성이 발달하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들의 두문화정체성 발달이 (1)문화 차이와 불화에 대한 자각; (2)수용을 위한 노력과 고투; 그리고 (3)자기수용 및 두문화정체성 주장단계로 진화하는 점을 고려하여(Kitch, 1992) 한국문화에 적응할 기간을 어느 정도 가진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 수준을 알아보았고 그러한 정체성들에 기반을 둔 두문화정체성이 이 여성들의 자기긍정성과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 두문화정체성과 자기긍정성 및 결혼안녕 간의 관계

(1)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의 안녕

결혼생활에 대한 안녕감은 부부 또는 기혼자가 결혼생활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결혼의 해체나 와해가능성을 낮게 지각하여 결혼이 안정적인 때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만족과 같은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이 안정적이고(White and Booth, 1991), 결혼만족은 결혼에 대한 헌신을 강화시켜 결혼의 안정을 돕지만(Impett, Beals and Peplau, 2003) 결혼안정이 결혼의 질과 별개인 요소로도 결정될 수 있어(김영희, 1999) 이 두 측면에 대한 연구는 각각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운데 결혼의 안녕에 대한 연구는 결혼생활에 만족하지만 결혼을 유지하는 일에 회의적이거나 결혼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결혼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자들과 구별되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의 결혼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한 서구학자들이 진행해 왔다(예: Crohan and Veroff, 1989; Ruvolo, 1998).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발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두문화정체성이 결혼의 질과 안정을 높이는 일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해 보인다. 하지만 기혼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개인적 특성, 즉 성격, 태도, 가치관, 문화정체성 등이 결혼만족을 결

정하는 주요인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김영희, 1999; Caughling, Huston and Houts, 2000; 권복순·차보현, 2006), 다문화가정 부부들의 결혼만족이나 결혼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슈로 문화차와 소통의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어(김이선 외, 2006; 한건수, 2006; 서해정·김형모, 2009), 문화적으로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두문화정체성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결혼의 안녕을 도울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경제적 어려움, 가부장적 가족질서로 인한 갈등, 언어와 문화차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및 고부갈등, 자녀양육문제, 시부모나 동서들의 무시와 따돌림, 홀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강유진, 1999; 홍달아가·채옥희, 2006; 박주희·정진경, 2007; 정혜영·김진우, 2009).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정에서 문화차로 경험하는 갈등과 소통의 문제나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을 다룬 질적연구들(김이선 외 2006; 한건수; 2006; 정혜영·김진우, 2009)에서는 맥락과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와 적절한 행동선택의 어려움, 가족 내 역할분담에 대한 시각차, 부부의 친밀감 표현방식의 차이, 시부모의 간섭과 통제, 친정지원이나 시부모 부양이슈로 인한 가족갈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적응과정에서 한국인 가족구성원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한 점과 무조건 이 여성들을 동화시키려는 시가족들의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한건수, 2006).

이 연구들에서 드러난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 가족문제, 문화차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은 많은 부분 이주여성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다각도로 살펴 그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때 해소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두문화정체성이 높은 이들은 각각의 문화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 상황에 맞게 문화들을 전환시키고(Benet-Martinez et al., 2002; Cheng, 2005), 정서적으로 개방적이며, 문화갈등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인지의 유연성이 발달하여(Chuang, 1999) 단일문화인들에 비해 인지적 복잡성이 높다(Benet-Martinez et al., 2006). 또한 두개 이상의 문화를 접촉하고 이해하게 될수록 일상에서 문화의 의미를 간파하고 조직화하는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Benet-Martinez et al., 2006). 따라서 두문화정체성이 높은 결혼이민여성들은 각 문화의 의미체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높은 자로 볼 수 있다. 이 여성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시 문화들을 상황에 맞게 전환시켜 적절히 반응하고 소통할 수 있으므로 한국인 배우자와 가족들뿐 아니라 모국인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고,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며 결혼생활을 주체적으로 보다 만족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어 결혼이 안정적인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두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한국과 모국에 대한 문화정체성은 각기 직접적으로 결혼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문헌을 보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문화정체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다(권복순·차보현, 2006). 것처럼 한국문화집단의 일원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고 범주화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그런 정체성이 낮은 여성들보다 결혼을 유지할 의사가 높아서 결혼생활이 안정적인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모국문화정체성이 높다는 것은 결혼이민여성이 자신의 민족고유성에 대한 긍지와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Phinney and Devich-Navarro, 1997), 그런 특성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당당히 표현하며 자기주도적인 결혼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결혼의 안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⁷⁾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결혼이민

여성들의 두문화정체성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의 안녕에 직접 및 간접경로로 기여할 것으로 가정하였고, 두문화정체성이 결혼의 안녕을 돕는 과정에 관련된 경로들을 아래에서 살펴본다.

(2)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자기긍정성의 매개 역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두문화정체성이 높은 자들에게서 발견되는 문화들의 전환능력과 문화적 의미의 조직화 능력(Benet-Martinez et al., 2002; Cheng, 2005)은 관점의 다각화를 촉진하여 개인의 긍정성을 키우며 결혼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관점의 다각화는 자신과 타인, 사건, 상황 등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입장과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인지적 성향을 의미하며(현경자, 2009),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범주화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참조들의 선택을 다각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인지적 활동은 문화, 사회구조적 위치, 상황, 개인적 성향 등으로 제약될 수 있는 개인의 주의(attention)와 인지의 폭을 확대하여 의미발견과 의미부여를 돕고, 맥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상황의 왜곡을 억제할 수 있다(Berlin, 2002). 관점의 다각화는 타인의 입장이나 사회의 시각에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이해와 수용의 폭을 넓히며, 대안적인 의미구성과 상황판단을 도우므로 자신과 삶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개인의 긍정성을 키울 수 있다(현경자, 2009).

실제로 관점의 다각화는 자기수용, 자기조절 같은 자기긍정성과 사회수용, 사회적응 같은 사회긍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현경자, 2009), 그와 유사한 개념들을 다룬 연구들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점의 다각화를 활용하는 마음챙김(mindfulness)은 사고의 유연성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도와 자기수용을 강화하고(Carson and Langer, 2006),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취득은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킬(Long and Andrews, 1990) 뿐 아니라 인종편견에 대한 무의식적 표현을 자제하게 하여 다른 인종들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돕는다(Todd, Bodenhausen, Richeson and Galinsky, 2011). 또한 관점의 다각화로 인한 자기지식의 증가는 태도와 행동의 일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여 자기조절을 도울 수 있다(Carver and Scheier, 1981).

관점의 다각화로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촉진될 수 있는 자기긍정적 태도, 즉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은 부부 혹은 가족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돕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억제시켜 결혼의 안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수용과 같은 자기존중감이 높은 기혼자들은 자신의 역할수행에 긍정적이며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결혼만족도가 높고(Lippes, 1999), 자기존중감은 결혼이민여성들의 결혼만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양순미·정현숙, 2006). 반면 자기조절은 생각, 행동, 느낌, 충동 등을 적절히 규제하고 화합을 위해 집단의 요구에 순응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도와 결

7) 선행연구(권복순·차보현, 2006)에서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모국문화정체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2006년 이전에 이주여성들이 문화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농촌지역에서 실시되어 본 논문의 가설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한국문화를 강조하며 동화를 강요하는 지역 분위기 속에서는 모국문화 정체성의 순기능이 발휘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혼만족 보다는 관계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Tagney, Baumeister and Boone,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두문화정체성이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을 돕고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성향은 이어서 결혼의 안녕, 즉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3) 부부의 의견일치를 돕는 관점다각화의 매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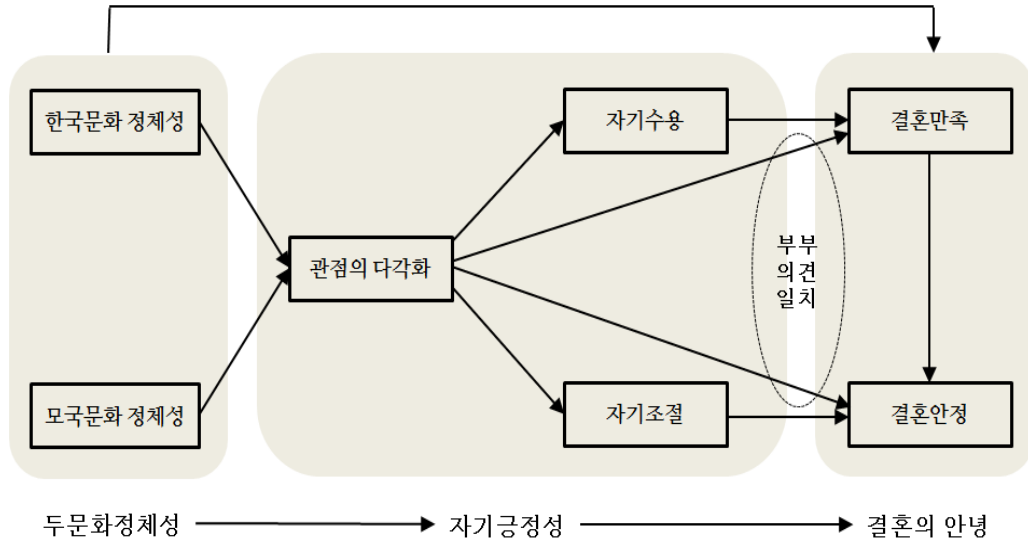
관점의 다각화는 Langer(1989: 71)가 개념화한 마음챙김의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그녀에 따르면 그러한 인지적 활동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와 단일관점에 익숙할 때 나타나는 자동적 반응이 줄어들고 특정상황에 대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의 가짓수가 늘어난다. 둘째,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의 폭이 넓어진다. 끝으로 그러한 개방적인 태도를 자기 자신의 행동에 적용하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도 더 쉬워진다. 관점의 다각화를 활용하는 마음챙김은 Burpee와 Langer(2005)의 연구에서 결혼만족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나타난다. 또한 관점의 다각화에 의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부의 지각일치와 열린 마음은 결혼만족에 기여하고(Plechaty, 1987; Buss, 1991; Nemecek and Olson, 1996), 공감능력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용서행동을 촉진하여 결혼만족을 돕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현주·안현의, 2011).

관점의 다각화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배우자의 입장과 한국인 가족 등 주변의 상황을 다각도로 살피며 공감할 수 있게 돕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선택할 수 있는 반응들을 보다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인지적 성향이 높은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인 배우자와의 지각일치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 부부간의 의견충돌이나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부부갈등이 다문화부부들 뿐 아니라 일반부부들 사이에서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요인인 점을 고려하면(김오남, 2006), 결혼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를 도울 수 있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의 다각화가 결혼의 안녕에 직접 기여하리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4) 두문화정체성,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자기긍정성, 결혼안녕 간의 관계구조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이 <그림 1>과 같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의 안녕에 직접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기긍정성의 구성요인, 즉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의 안녕을 도울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문화정체성은 문화들의 전환과 문화적 의미의 조직화를 촉진하며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한국남성과의 결혼생활을 원만히 영위하도록 도와 결혼의 안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두문화정체성은 자기수용과 자기조절 같은 자기긍정성을 양성할 수 있는 관점의 다각화를 도와 이들을 통해 결혼의 안녕에 기여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인 태도는 배우자와 가족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도울 수 있어 자기수용은 결혼만족에, 자기조절은 결혼안정에 각각 기여할 것이다. 셋째, 두문화정체성으로 촉진되는 관점의 다각화는 결혼생활의 여러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해

줄 수 있어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를 돕고 결혼해체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장려하여 직접 결혼의 안녕에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결혼만족은 결혼에 대한 헌신을 강화시켜 결혼의 안정을 도울 것이다.



<그림 1> 두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을 통한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연구모형. (모든 관계는 정적(+)인 관계임.)

이상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이론변수인 두문화 정체성과 자기긍정성 및 결혼안녕 간의 관계구조에 대한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둘째, 측정 변수들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탐색적으로 실시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가 세부적인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예를 들면, 관점의 다각화가 부부간의 의견일치를 도울 수 있어 결혼의 안녕에 직접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의 연구모형과 관점의 다각화가 부부의 의견일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경쟁모형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적합도가 우수한 모형을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권복순·차보현, 2006)에서 모국문화정체성과 한국문화정체성이 결혼이민여성의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가 상반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각 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과 결혼의 안녕을 구성하는 변수들에 연관된 구체적인 경로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안녕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국내외 모두 거의 전무하고, 두문화정체성이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자기긍정성과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과정에 대한 탐색이 지식개발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어 시도되었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표집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한국남성과의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로 두문화정체성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 가진 자로 한정하였다.⁸⁾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중국 한족, 조선족 그리고 베트남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적표집을 실시하였다. 2005년도 법무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64.7%(이 중 47.4%는 중국동포)로 가장 많고, 지난 5년 사이에 급증한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베트남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08)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집단을 표집대상으로 한정하여⁹⁾ 다양한 국가에서 유입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이 본 연구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통제하였다.¹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위해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여성결혼이민자를 접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총 21개 기관에 본 연구자가 협조를 요청하여 이 중 18개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¹¹⁾ 기관별 자료수집은 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담당 실무자나 결혼이민여성 활동가들이 주로 맡아 이에 대한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되었다. 조사 참여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5000원짜리 상품권이 사례로 지급되었다. 이 과정을 거쳐 여성결혼이민자 300명에 대한 설문지가 수거되었고, 검토 과정에서 응답이 부실하거나 연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일부 제외되어 총 281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2) 측정

본 연구를 위해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는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되었다. 설문지 번역은 각 나

8) 국내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결혼이민여성들 사이에서도 문화적응 유형의 변화와 안정화가 관찰되고 있어(최혜지, 2009 재인용) 이 기준에 큰 무리가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

9) 2011년 현재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이 45%(한족 25.5%, 조선족 1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베트남(28.59%)으로 이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1).

10)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란 젊은 조선족 여성들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인식하며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하고 남녀평등 사고에 익숙하여 한국의 위계적인 가족관계 적응을 어려워한다(박혜란, 1994). 중국 한족과 조선족이 중국문화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차이를 보인다면 이를 통해 문화정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이 가능하므로 함께 표집되었다.

11) 조사 참여 기관들은 서울(8개 기관)과 일산, 시흥, 과주 등 수도권(4개 기관) 그리고 부산(3개 기관), 울산(1개 기관) 대전(2개 기관) 등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다. 기관의 특성별로 보면 시민단체 3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곳, 그리고 지역복지관이 12곳이다. 자료수집은 2011년 1월에 시작되어 자료 보완 등으로 4월에 완료되었다.

라의 언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번역을 주 업무로 해온 이주외국인 활동가가 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해석 등의 오류 파악을 위해 번역된 설문지는 또 다른 이중언어 능통 활동가들에 의해 한국어로 재번역 되었다. 이를 토대로 번역의 질과 의미전달의 타당성 등이 검토되었고 예비조사에서 발견된 오류, 지적사항, 의문점 등은 연구자가 번역자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협의하여 수정하였다.

(1) 두문화정체성

두문화정체성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문화와 모국문화 정체성 각각이 측정되었다. 이를 위해 다중집단 민족정체성 척도 중 전념(Commitment) 하위척도의 항목들이 이용되었다(Roberts, Phinney, Chen, Roberts, and Romero, 1999). 이 척도는 Phinney(1992)와 그 동료들(1999)이 함께 발전시켜 온 것으로 민족정체성 탐색과 전념 차원으로 나뉘어져 연구목적에 따라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전념차원의 척도가 민족문화정체성 측정에 적절한 것으로 추천된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 시 의미의 중복이 예상되는 항목들을 제외한 5개 항목이 사용되었고,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측정될 수 있게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양국의 입장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예: “나는 내 자신을 중국인(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다.”, “나는 중국(한국)과 중국(한국)문화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고, 점수는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정체성이 높고 명확함을 뜻하며, 각각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4와 .90으로 우수하였다.

(2) 자기긍정성 구성요인 -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은 현경자(2009)가 개발한 긍정적 태도 척도의 자기긍정성 하위척도로 측정되었다. ‘관점의 다각화’는 일상생활에서나 어려운 일에 대처할 때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며 의미와 해결책을 찾는 자기성향을 묘사한 7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예: “나는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어려운 일에 처하면 여러 각도에서 그 일을 살펴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 ‘자기수용’은 역할수행을 잘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수용과 만족을 묘사하는 항목 6개로 측정되었고(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실하게 사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자기조절’은 상황에 맞게 자신을 잘 다스리고 조절하는 성향이 드러나는 3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예: “힘들거나 답답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점수는 6점 척도(‘1.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6. 거의/전적으로 그렇다’)로 측정된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관점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정도가 높음을 뜻한다. 자기긍정성 척도와 이 세 하위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89와 .79, .72, .58로 나타났다.

(3) 갈등영역의 부부의견 일치

결혼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답자가 느끼는 배우자와의 생각 또는 의견 일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부부갈등 연구(예: 이동원, 1988; Kurdek, 1994)에서 사용된 문항 19개가 측정되었다. 이 항목들은 크게 가정생활에서의 의사결정(예: 금전관리), 생활방식(예: 생활습관, 여가활동, 가사일 분담), 부부관계(예: 애정, 성문제), 개인특성(예: 인생관/가치관, 전통이나 관습에 대한 태도, 친구문제, 배우자의 역할기대), 가족문제(예: 친인척을 대하는 면, 자녀양육방식) 등을 포함한다. 갈등영역에 대한 배우자와의 의견일치 점수는 4점 척도('1. 거의 틀림': '4. 거의 같음')로 측정되었고, 척도점수는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의견 일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하나의 척도로 보기 어려우나, 신뢰도는 .94로 우수하였다.

(4) 결혼의 안녕

결혼의 안녕은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측정하는 변수들로 측정되었다(Crohan and Veroff, 1989). '결혼만족' 측정에는 결혼만족의 주관성을 고려하여 가치중립적인 문항 3개(결혼생활, 배우자, 배우자와의 관계)로 구성된 Kansas 결혼만족척도(Schumm et al., 1986)가 이용되었고, 정현숙(1997)의 제안에 따라 부모로서 느끼는 만족 항목이 추가되었다. 척도점수는 7점 척도('1. 전적으로 불만족', '7. 전적으로 만족')로 측정된 응답의 평균이 이용되었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우수하였다.

'결혼안정'은 Booth, Johnson과 Edwards(1983)가 개발한 결혼불안정 척도의 5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부부상호 간의 행동심리가 결혼을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는지 등을 측정한다. 따라서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또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 등이 측정되었다. 이 척도는 지난 3년의 경험을 기준하여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결혼안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을 기준하여 측정하였다. 2점 척도로 구성된 측정문항은 응답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이 안정적일수록 역코딩되었다(0=예, 1=아니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로 우수하였다.

3) 분석

연구 질문별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의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의 수준을 조사하였고, 분산분석을 통해 각 문화정체성의 수준이 응답자들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연구모형에 포함된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두문화정체성과 자기긍정성 구성변수들 및 결혼안녕을 구성하는 결혼만족과 결혼안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두문화정체성(한국문화정체성, 모국문화정체성)과 자기긍정성(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 및 결혼안녕(결혼만족, 결혼안정) 간의 관계구조 적합도와 측정변수들을 이용한 탐색적 경로분석모형의 적합도를 AMOS로 평가하였다. 모수추정은 자료에 결측치가 있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IML)을 이용하였다.¹²⁾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에 대

12)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작위로 발생하거나 한 변수의 결측여부가 다른 변수 값에 의해 결

한 비교분석을 위해 카이자승(χ^2) 차이검정 및 적합도의 차이가 검토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 카이자승(χ^2) 검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그 값을 자유도로 나눈 수치(CMIN/df)가 적합성 평가기준 3이하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Kline, 1998). 또한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함께 고려하는 TLI와 RMSEA 등의 지수가 검토되었다(홍세희, 2000). 구체적으로 표준부합치(NFI), 비교부합치(CFI), 비표준부합치(TLI) 값이 .95 이상, 개략화오차(RMSEA) 값이 .06 이하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하였다(Hu and Bentler, 1999).

4. 분석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자들의 출신국은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55.4%와 44.6%를 차지하였고, 중국 출신은 조선족과 한족이 각각 23.9%와 31.4%로 나뉘었다. 이 여성들의 연령은 최소 21세에서 최대 57세로 그 폭이 매우 넓었으나 약 91%가 20~30대에 속하였고 평균연령은 31.1세(SD=6.65)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자가 80.6%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학교 중퇴 이상인 자가 19.4%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의 정규교육 했수 평균은 11년(SD=3.07)으로 고등학교 중퇴 수준에 해당되었다. 응답자들의 결혼상태는 90.6%가 초혼, 8.3%가 재혼이었다. 이 여성들의 대다수(87.4%)는 결혼을 이유로 입국하였고, 그 외 취업, 유학, 친지방문 등이 입국이유로 제시되었다. 응답자들의 국내 거주기간은 평균 5.62년(SD=2.85)이었고 대다수(91.1%)가 2001년 이후 입국하였다. 응답자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41%,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5.4%로 다수의 응답자(76%)가 이 두 범주에 속하였으나,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4.8%를 차지하였다. 응답여성들의 34.1%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외에 수도권에 30.8%, 대전, 울산, 부산 등 광역시에 35.1%가 거주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결혼이민여성 응답자들은 한국거주 기간이 평균 약 5년 7개월로 국내거주 기간 3년 이상이라는 표집 조건을 대부분 만족시켰다.¹³⁾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30대 초반의 나이에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약 12세인 초혼자로 대도시나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되는 경우 모두에 전통적인 방법(listwise 또는 pairwise)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 측정을 한다(Arbuckle, 1996). Enders와 Bandalos(2001)는 FIML이 결측치가 포함된 모의자료(simulated missing data)로 정확한 부합치를 산출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 13) 이 기준에 위배되는 소수의 경우들, 즉 국내거주 기간이 3년 이하이나 응답자가 모국에서 한국남편과 결혼하여 생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거나 한국남편과의 결혼기간은 3년 미만이나 유학, 취업 등으로 국내거주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들은 한국문화 적응 기간이 3년을 초과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표집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1〉 조사 참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특성변수		N	%	특성변수		N	%	
출신국	중국(한족)	88	31.4	입국 이유	결혼	242	87.4	
	중국(조선족)	67	23.9		취업/사업/업무 등	20	7.2	
	베트남	125	44.6		유학	5	1.8	
	중국계 55.3%/베트남 44.6%				기타(친지 방문 등)	10	3.6	
연령	20대	132	50.2	국내 입국 시기	1991년-1995년	4	1.4	
	30대	107	40.7		1996년-2000년	21	7.5	
	40대	23	8.7		2001년-2005년	103	36.8	
	50대 이상	1	0.4		2006년 이후	152	54.3	
	M=31.11세/SD=6.65				거주기간 M=5.62년/SD=2.85			
최종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26	9.4	가족 월 수 입	100만원 미만	13	4.8	
	중학교 졸업이하	75	27.0		200만원 미만	96	35.4	
	고등학교 졸업이하	123	44.2		300만원 미만	111	41.0	
	대학교 졸업이하	50	18.0		300만원 이상	35	12.9	
	대학원 이상	4	1.4		잘 모르겠다/기타	16	5.9	
	기타	-	-		-			
	M=11년/SD=3.07							
결혼 상태	초혼	252	90.6	거주 지역	서울	95	34.1	
	재혼	23	8.3		경기도 수도권	86	30.8	
	기타/동거	3	1.1		광역시(대전, 울산 부산)	98	35.1	
	결혼기간 M=5.52년/SD=2.63							

주) 변수별로 제시된 응답자 수는 무응답이 제외된 것임(N=263~280)

2) 결혼이민여성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 수준에 대한 기술통계와 출신국별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결과는 〈표 2〉에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표 2〉와 같이 평균적으로 모국문화정체성을 한국문화정체성 보다 높게 보고하였다. 모국문화정체성의 평균(M=3.93, SD=.79)은 4점 '그렇다'에 근접한 반면 한국문화정체성의 평균(M=3.55, SD=.69)은 3점 '약간 그렇다'와 4점 '그렇다'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하지만 응답자들의 출신국별로 보면, 한국문화정체성의 경우(F=4.56, p<.05), 중국 한족출신들의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M=3.39, SD=.72) 조선족과 베트남 출신 응답자들은 각각 전체평균과 같거나(M=3.55, SD=.53) 그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다(M=3.67, SD=.73). 이 중 베트남 출신들의 한국문화정체성 수준이 중국 한족 출신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모국문화정체성의 경우(F=10.59, p<.001), 평균적으로 4점 "그렇다" 수준을 보인 중국 한족과 베트남 출신 응답자들(Ms=4.09, 4.01, SDs=.69, .83 각각)에 비해 조선족 출신들의 그런 정체성(M=3.55, SD=.53)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표 2〉 문화정체성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출신국별 분산분석결과

출신국	문화정체성 변수	한국문화정체성				모국문화정체성			
		Mean	SD	F	Scheffe	Mean	SD	F	Scheffe
전체		3.55	.69	-	-	3.93	.79	-	-
중국 조선족		3.55	.53		ab	3.55	.73		a
중국 한족		3.39	.72	4.56*	a	4.09	.69	10.59***	b
베트남		3.67	.73		b	4.01	.83		b

* p<.05, *** p<.001

3) 두문화정체성, 자기긍정성 및 결혼안녕 간의 관계구조

두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 구성요인들을 통해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과정에 관련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예측대로, 두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은 정적으로 연관되었고($r=.37, p<.001$),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관점의 다각화($r_s=.28, .24$ 각각), 자기수용($r_s=.29, .25$ 각각), 자기조절($r_s=.22, .21$ 각각)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p_s<.001$). 즉, 한국문화와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찾는 인지적 성향이 높았고, 자신을 수용하고 조절하는 정도도 높았다. 그러한 문화정체성 변수들은 결혼의 안녕을 대변하는 변수들과도 거의 대부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한국문화정체성이 명확한 응답자일수록 배우자와의 의견일치와 결혼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으며($r_s=.30, p_s<.001$ 각각), 결혼을 안정적으로 보고하였다($r=.18, p<.01$). 또한 모국문화정체성이 명확한 응답자일수록 결혼만족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r=.23, p<.001$). 하지만 모국문화정체성과 배우자와의 의견일치 간의 정적상관은 미미하였고($r=.08$), 결혼안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r=-.00$), 결혼안정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문화정체성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자기긍정성을 구성하는 세 요인들은 선행연구(현경자, 2009, 2010)와 일관되게 서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관점의 다각화는 예측대로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고($r_s=.72, .60, p_s<.001$) 이들은 결혼의 안녕을 시사하는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관점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은 결혼만족($r_s=.36, .52, .32$ 각각, $p_s<.001$), 결혼안정($r_s=.17, .26, .19$ 각각, $p_s<.01$), 배우자와의 의견일치와 정적으로 연관되었다($r_s=.23, .38, .17$ 각각, $p_s<.01$).

〈표 3〉 두문화정체성과 자기긍정성 및 결혼안녕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분석결과와 평균 및 표준편차

변수	1.	2.	3.	4.	5.	6.	7.	8.	
1. 한국문화정체성									
2. 모국문화정체성	.37***								
3. 관점의 다각화	.28***	.24***							
4. 자기수용	.29***	.25***	.72***						
5. 자기조절	.22***	.21***	.60***	.61***					
6. 부부의견일치	.30***	.08	.23***	.38***	.17**				
7. 결혼만족	.30***	.23***	.36***	.52***	.32***	.60***			
8. 결혼안정	.18**	-.00	.17**	.26***	.19**	.49***	.49***		
기술통계	평균	3.55	3.93	3.87	3.89	3.72	2.84	5.23	0.84
	SD	.69	1.32	0.54	0.56	0.64	0.54	1.20	0.27

p<.01, *p<.001

공변량구조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자료가 최대우도 추정방식에서 전제하는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에 부합하지를 평가하였다. 측정변수들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및 특이사례 여부 등을 검토하였고(Kline, 1998),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살펴보았으나 우려할만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측정변수들의 왜도 범위는 -.23~-1.7로 나타났고 첨도 범위는 .40~2.33으로 모두 단일변량 정규분포를 위반하는 기준수치(왜도>2, 첨도>7) 보다 낮았다(Curran, West and Finch, 1996).

두문화정체성과 자기긍정성 및 결혼의 안녕으로 개념화된 이론변수들 간의 관계구조에 대한 적합도 검정결과는 〈표 4〉에 있다. 이 분석에는 경제적 곤란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긍정성이나 결혼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교육수준이 관점의 다각화와 결혼만족에 관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외생변수로 포함시켜 자기긍정성과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통제하였다.¹⁴⁾

〈표 4〉 두문화정체성, 자기긍정성 및 결혼안녕 간의 관계구조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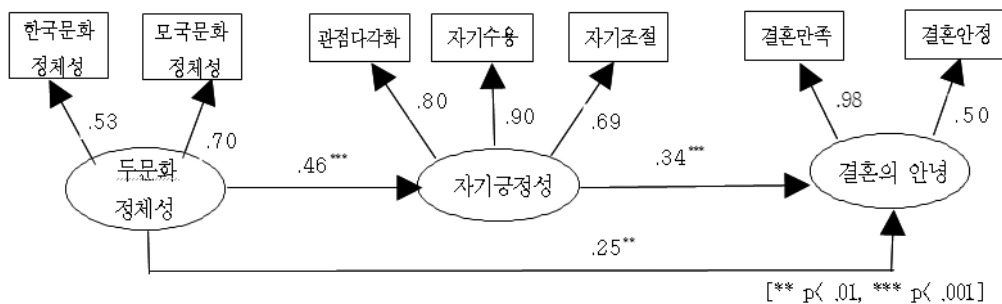
모형검정	χ^2	df	CMIN/df	NFI	CFI	TLI	RMSEA
연구모형 - 부분매개	39.24*	22	1.78	.94	.97	.95	.05(.02-.08)
경쟁모형 - 완전매개	47.65***	23	2.07	.93	.96	.92	.06(.04-.09)

〈표 4〉에 나타나듯이 연구모형, 즉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안녕 간의 관계가 자기긍정성에 의해 부분매개 되는 모형의 적합도가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보다 우수하였다. 이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χ^2) 값이 39.24(df=22, n=281)로 유의했으나(p<.05), 표준부합치, 비교부합치, 비표준부합치의 값이

14) 경제적 곤란은 5점 척도로 된 단일문항, “지난 1년간 귀하는 가족의 지출에 필요한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까?”로 측정되었고, 교육수준은 정규교육을 받은 했수가 사용되었다.

각각 .94, .97, .95로 기준치 .95를 상회하거나 그에 근접했고 개략화오차도 .05로 기준치(.06)보다 낮았다. χ^2 차이검정 결과도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경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Delta\chi^2(1) = 8.41, p < .001$, 연구모형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 제시된 모든 측정변인들과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이다. 예측대로,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한 두문화정체성은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로 구성된 자기긍정성에 정적으로 기여하였고($\beta = .46, p < .001$), 그러한 자기긍정성은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의 안녕과 정적으로 연관되었다($\beta = .34, p < .001$).¹⁵⁾ 두문화정체성은 또한 결혼의 안녕을 직접 돕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25, p < .01$). 두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을 통해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간접효과, 즉 매개효과는 .16으로 유의했고($z = 3.08, p < .01$)¹⁶⁾ 총 효과는 .41로 자기긍정성의 직접효과(.34)보다 컸다. 요약하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통해 두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을 통한 간접경로와 직접경로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며 그 효과가 실질적임이 확인되었다.



<그림 2> 두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을 통한 경로와 직접 경로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부분매개 연구 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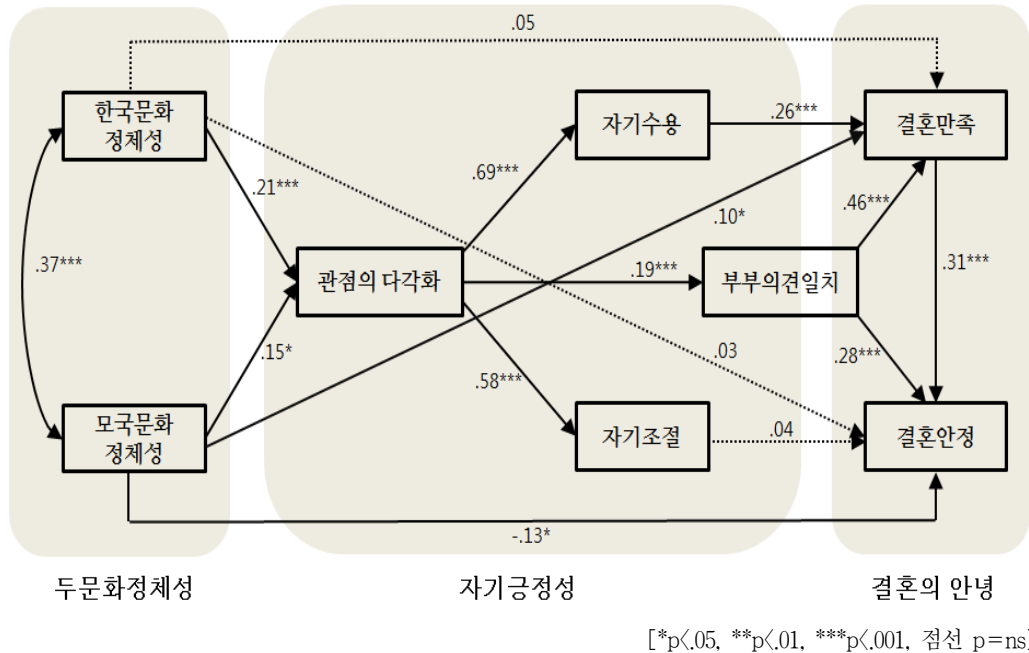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가 세부적인 연구가설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림 1>에 제시된 경로모형과 관점의 다각화가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직접 기여하는 경로에서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경로로 수정된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두 모형 모두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의견일치가 추가된 경쟁모형보다 간명한 <그림 1>의 연구모형이 조금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으나 경쟁모형의 분석결과가 연구가설, 상관분석결과, 기존이론 및 연구결과들과 보다 일치하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모형이 경로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¹⁷⁾ 선정된

15) 이 분석에서는 긍정적 태도 척도개발 연구(현경자, 2009 참조)와 일관되게 관점의 다각화와 그것에 기반을 둔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을 자기긍정성의 측정변인들로 함께 포함시켰다. 이와 같이 특정심리 상태와 그 근원이나 근거가 되는 변수를 함께 측정하는 척도의 예로 Hope 척도(Snyder, Harris, Anderson et al., 1991 참조)가 있다. 관점의 다각화가 예측대로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을 촉진하는지는 이후의 경로분석에서 확인하였다(<그림 3> 참조).

16) 이 연구에 보고된 모든 단일매개효과의 유의도는 Sobel의 공식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Kline, 1998).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자승(χ^2) 값이 40.82(df=20)로 $p<.01$ 수준에서 유의했으나, 적합도 지수로 검토되는 표준부합치, 비교부합치, 비표준부합치의 값이 각각 .95, .98, .93으로 양호하거나 적절하였고, 개략화오차도 .06(.03-.09)으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선택된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3>에 있다. 이 그림에서 각 경로의 회귀표 위나 아래에 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이고, 통제변수로 포함된 경제적 곤란과 교육수준 효과의 제시는 앞서의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제시와 마찬가지로 분석모형에 대한 결과가 보다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생략되었다.



<그림 3>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 구성요인 및 부부의견일치를 통한 간접경로와 직접 경로로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기여하는 경로분석 결과

<그림 3>에 나타나듯이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은 관점의 다각화와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결되고(β s=.21, .15, p s<.001, .05 각각) 관점의 다각화는 예측대로 자기수용, 자기조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β s=.69, .58, p s<.001 각각) 각각의 문화정체성이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자기긍정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문화정체성이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직접효과는 유형에 따라 달랐다. 한국문화정체성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예측과 일관되게 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유

17)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에서 관점의 다각화는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에서는 관점의 다각화가 결혼안녕과 연관된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를 도와 이를 통한 경로들로 결혼안녕을 돕는 간접효과(.17)가 컸다. 이 효과가 결혼안녕에 미치는 관점다각화의 총간접효과 .42의 약 40%를 차지하였다.

의미하지 않았다($\beta_s = .05, .03$ 각각). 반면 모국문화정체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예측과 일관되게 정적으로 유의미했다($\beta = .10, p < .05$). 그러나 이 변수가 결혼안정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예측과 상반되게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 = -.13, p < .05$).

관점의 다각화는 예측대로 응답자가 지각하는 배우자와의 의견일치와 연관되었고($\beta = .19, p < .001$) 이 변수는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결되었다($\beta_s = .46, .28$ 각각, $ps < .001$). 자기수용 또한 결혼만족에 정적으로 기여하여 각각의 문화정체성은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배우자와의 의견일치 경로와 자기수용 경로를 통해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관점의 다각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기조절이 결혼안정을 돕는 직접효과는 예측과 일관된 방향이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4, p = ns$). 끝으로 결혼만족은 예측대로 결혼안정을 직접 도왔다($\beta = .31, p < .001$).¹⁸⁾

아울러 응답자의 문화정체성이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출신국 변수가 각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추가로 통제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¹⁹⁾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χ^2) 값이 70.49(df=29, n=281)로 유의했으나($p < .001$) 그것을 자유도로 나눈 값은 2.43으로 해석기준(3)보다 낮았고, 표준부합치, 비교부합치, 비표준부합치 및 개략화오차 값이 각각 .92, .95, .89, .07(.05-.09)로 나타났다.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비표준부합치(TLI)와 개략화오차(RMSEA) 값이 앞서 보고된 최종 경로모형의 그런 값들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반적으로 적합도는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주요 경로계수들의 크기와 방향도 앞서 제시된 결과와 거의 유사하여 출신국 효과를 통제하고도 최종 선정된 모형이 자료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끝으로 각 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과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분해한 결과는 <표 5>와 <표 6>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나타나듯이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 각각이 관점의 다각화에 미치는 직접효과(21, 16)와 이를 통해 자기수용(15, 7) 및 자기조절(12, 7)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실질적이었고 모두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문화정체성이 자기긍정성 구성변수들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더한 총효과(.48)가 모국문화정체성의 그러한 총효과(.30)보다 컸다.

18) 경제변수, 즉 지출한 돈의 충분함과 교육수준은 분석에 고려된 자기긍정성 및 결혼안녕 변수들과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결혼안정을 제외하고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19) 출신국 변수는 더미변수(중국 한족 출신=1, 조선족과 베트남 출신=0)가 사용되었다. 베트남과 조선족 출신은 각 문화정체성 평균이 전체집단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모두 높거나 모두 중간수준을 각각 보인데 반해 한족 출신은 모국문화정체성이 높고 한국문화정체성이 낮아 이들과 그 외 집단이 구분되었다. 이러한 문화정체성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시도한 결과, 베트남과 조선족 출신은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상관($r_s = .50, .43, ps < .001$ 각각)을 그리고 한족 출신은 낮은 정적상관을 보여($r = .24, p < .05$) 그러한 집단구분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표 5〉 두문화정체성 구성변수들이 자기긍정성 구성요인들에 미치는 효과분해

자기긍정성 구성요인		관점의 다각화				
		직접효과	간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문화정체성 유형	두문화	.21***	.15**	.12*	.48	.78
	정체성	.16*	.7*	.7*	.30	

*p<.05, **p<.01, ***p<.001

이 연구의 측정변수들이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효과가 분해되어 있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문화정체성은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대한 직간접효과(.05, .06; .03, .05 각각)와 총효과(.11, .08 각각)가 모두 정적으로 나타나 모국문화정체성보다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총효과가 컸다(.19 vs. .07 각각).²⁰⁾ 반면 모국문화정체성은 결혼만족을 돕는 직접효과가 컸으나(.10) 한편으로 결혼안정을 낮추는 직접효과도 컸다(-.13). 하지만 모국문화정체성이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경로들로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을 도와(.04, .06 각각) 결혼안정에 대한 부적효과를 일부 상쇄시킴에 따라 이 두 측면의 결혼안녕 효과를 합한 총효과는 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한편 자기긍정성의 근원이 되는 관점다각화가 자기수용, 자기조절 및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를 통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기여하는 간접효과는 각각 .26과 .16으로 컸고 이들의 합은 자기긍정성 변수들이 결혼안녕에 미치는 총 효과의 50%이상을 차지하였다.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는 단일변수로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주목되었다.

〈표 6〉 두문화정체성과 자기긍정성 구성변수들 및 의견일치가 결혼안녕에 미치는 효과분해

영향 변수		결혼만족			결혼안정			결혼안녕	
		직접	간접	총효과	직접	간접	총효과	총효과	
두문화 정체성	한국문화	.05	.06	.11*	.03	.05	.08*	.19	.26
	모국문화	.10*	.04	.14*	-.13*	.06	-.07	.07	
자기 긍정성	다각화	-	.26	.26**	-	.16	.16*	.42	.80
	자기수용	.26**	-	.26**	-	.08	.08*	.34	
	자기조절	-	-	.00	.04	-	.04	.04	
-	의견일치	.46***	-	.46***	.28**	.14	.42***	.88	.88

*p<.05, **p<.01, ***p<.001

20)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미치는 문화정체성 변수들과 자기긍정성 변수들의 간접효과는 여러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이중매개 또는 삼중매개효과가 포함되어 있어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따로 산출하지 않았다. Cohen과 Cohen(1983)은 총효과의 유의도는 회귀분석으로, 이중매개 이상의 경우, 매개효과와 관련된 직접경로의 계수들이 유의하면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그림 3〉을 살펴보면, 각 문화정체성→관점의 다각화→자기수용or부부의견일치→결혼만족→결혼안정 경로 그리고 모국문화정체성→결혼만족 and/or 결혼안정 경로에 관련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논의 및 제언

1) 주요결과에 대한 논의

이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강점이 될 수 있는 두문화정체성과 관점의 다각화에 기반한 자기긍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의 안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중국 한족, 조선족 및 베트남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한국문화정체성과 모국문화정체성으로 구성된 두문화정체성은 예측대로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로 구성된 자기긍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그러한 자기긍정성은 결혼만족 및 결혼안정으로 대변되는 결혼의 안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한 두문화정체성은 결혼의 안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가 세부적인 연구가설과 일치하는지를 알아본 경로분석에서 각 문화정체성은 관점의 다각화를 도와 이를 통해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과 연관되었고, 자기수용은 예측대로 결혼만족과 정적으로 연관되어 결혼안정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 반면 결혼안정에 대한 자기조절의 예측된 정적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관점의 다각화는 결혼의 안녕을 직접 돕기 보다는 응답자들의 자기수용과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를 돕는 경로로 결혼만족과 결혼안정 양 측면을 강화하였다. 이 분석에서 한국문화정체성이 결혼만족과 결혼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관점의 다각화에 따른 자기수용과 배우자와의 의견일치에 의해 완전매개되었고, 모국문화정체성이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효과는 일부만 그러한 경로를 통해 매개되었다. 모국문화정체성은 또한 직접적으로 결혼만족을 돕는 한편 결혼안정을 낮추었다.

이와 같은 경로분석의 결과는 모국문화정체성과 결혼안녕 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시사하지만, 효과분해 결과에서 각 문화정체성이 결혼의 안녕을 돕는 총효과가 정적으로 나타났고, 측정변수들의 공통변량을 이론변수로 사용하여 측정오류를 통제하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의 결과도 두문화정체성이 직접 및 간접경로로 결혼의 안녕을 도울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한국남성들의 아내로 소외되기 쉬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특성을 긍정적 측면에서 생각해보게 하는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자신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와 같은 이주민들에게 두문화정체성이 고유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대부분의 결과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문화정체성이 높은 자가 각 문화의 의미체계를 적절히 활용하며 상황에 맞게 문화틀을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들(Benet-Martinez et al., 2002, 2006)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그러한 자기특성이 결혼이민여성들의 관점다각화를 도우며 긍정적 태도를 키워 결혼의 안녕에 기여함을 보여줌으로써 두문화정체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모국문화정체성이 결혼안정과 부적관계를 보여 그러한 정체성이 결혼의 안

녕을 돕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이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결혼생활의 안녕감은, 효과분해결과가 시사하듯이, 모국문화정체성보다 한국문화정체성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컸다. 하지만 모국문화정체성도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경로들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고 직접 결혼만족을 도와 결혼안정에 대한 부적효과를 자체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어 심리적 자원으로서 모국문화정체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Tajfel(1982)의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이주국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는 이민자들은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수단의 하나로 자신이 속한 집단, 즉 모국문화집단을 이주국과 차별화시켜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거나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이론은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모국문화정체성이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자기존중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정체성이 결혼의 대안으로 돌아갈 곳을 상기시키는 자원이 될 수도 있어 그 효과가 결혼안정과 부적인 관계로 나타난 것이라면, 당사자의 정신건강에는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개인의 문화적 배경과 소속집단에 대한 자부심을 내포하는 모국문화정체성과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촉진되는 자기수용이 각기 결혼만족에 정적인 기여를 하여 모국문화정체성의 그러한 순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국문화정체성과 자기수용을 통해 촉진되는 자기존중과 자긍심이 각기 결혼만족을 돕는다면, 우선 그 질이 다르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고, 자기존중의 근원이 무엇이든 그런 특성들이 결혼이민여성의 결혼만족에 중요함을 시사하므로 이 여성들의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해 보인다.

이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각 문화정체성이 관점의 다각화와 정적으로 연관되어²¹⁾ 특정문화집단의 일원으로 자신을 범주화하고 동일시하는 성향과 그에 따라 경험되는 긍정적 감정이 독자적으로 관점의 다각화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문화정체성은 개인이 자신의 사회문화적 경험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서 발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지적 활동이 의미 구성과 연관되어 관점의 다각화에도 유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인 감정의 경험이 감정의 조절을 용이하게 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도우므로(Fredrickson, 2000), 명확한 문화정체성과 연관된 자부심, 소속감 등의 긍정적 감정이 관점의 다각화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두문화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발견된 관점의 다각화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기긍정성을 키우며 자기수용과 배우자와의 의견일치를 통한 경로로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였다. 이는 관점의 다각화가 개인의 긍정성 뿐 아니라 부부관계의 긍정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양한 관점의 활용이 타인과의 공감을 촉진하고 특정상황에 대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의 폭을 넓힌다면(Langer, 1989), 그러한 인지적 활동은 부부갈등에 대한 당사자의 반응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점의 다각화는 나와 다른 타인의 입장이나 사회의 시각에서 생각해보고 다양한 시점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찾게 하고 성급한 판단을 억제하므로 문화적용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울, 불안, 적대감 등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21) 이러한 결과도 그러한 정체성이 둘 다 높은 두문화정체성이 관점의 다각화를 더욱 활발하게 하리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있을 것이다. 실제로 관점의 다각화는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는 생애위기 경험자들의 긍정적 정서를 돕는 한편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현경자, 2010), 두문화정체성과 관점의 다각화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부부갈등 대처와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바를 알아보는 연구가 의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경로분석에서 결혼안정에 미치는 자기조절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기조절이 개인의 환경적응과 성공 뿐 아니라 결혼관계의 안정성을 돕는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Tangney et al., 2004) 이 연구는 그러한 자기성향이 결혼해체에 대한 고려나 배우자와의 문제인식 등과 상관이 없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자기조절을 보다 세밀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종단적인 연구 설계로 그 효과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경로분석의 결과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효과를 통제하고도 지지되었지만 이 연구의 기술통계 분석에서 모국문화정체성과 한국문화정체성은 응답자의 출신국에 따라 차이가 났다. 두문화정체성 차원에서 볼 때 베트남 출신은 각 문화정체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조선족 출신은 각 문화정체성이 평균적으로 같고 높지 않아 중간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중국 한족 출신은 Berry(1997)의 문화적응 유형 중 분리유형에 해당되는 모국문화정체성이 높고 한국문화정체성이 낮은 특징을 보여 두문화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는 베트남 출신들 사이에서 문화적응의 통합유형이 우세하고, 중국 출신들 사이에서 주변화유형이 우세하게 나타난 선행연구(최혜지, 2009)와 유사한 점이 있어 주목된다. 그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통합유형이 우세하였으나 배우자 효과를 통제한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출신국별 차이가 발견되고 중국계가 상대적으로 두문화정체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의 두문화정체성 발달을 돕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출신국별로 밝히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2)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와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발달할 수 있는 두문화정체성이 이들의 긍정적 태도와 결혼의 안녕을 도울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그러한 문화적 특성을 키우고 존중하는 지원과 정책을 생각해볼게 한다. 문화정체성은 개인이 자기가 처한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그러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고 편견이나 차별에 부딪히는 일 없이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면 한국문화정체성 또한 자연스럽게 발달할 것이고, 이는 다문화가족의 안녕과 해체방지를 돕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과 다문화적 감수성을 정책적으로 격려하고 지원하여 이 여성들의 모국문화정체성이 유지되게 돕는 일도 똑같이 중요해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는 그 여성의 되어짐에 기여한 핵심요소이므로 이 여성들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러한 정체성 또한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두문화정체성 발달을 돕는 일은 결국 이 여성들의 긍정적 태도를 키우고 배우자와의 의견일치와 원만한 결혼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인지기제, 즉 관점의 다각화를 양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관점다각화의 다양한 순기능을 고려하면 한국인 남편들이 그러한 인지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개입도 필요해 보인다. 한국남편들이 외국인 아내의 문화를 습득하여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다면, 관점의 다각화가 활발히 이루어져 결혼의 안녕 또한 강화될 것이다. 실제로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이근무·김진숙, 2009)에서 외국인 아내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 보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들을 연결지어 보면, 다문화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늠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복지실천 측면에서, 현장실천가들은 문화정체성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점검해 보아야 하고 다문화적 요소를 존중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원문화와 주류문화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때 적응과정이 원활해지므로(Oetting and Beauvais, 1991) 이 여성들이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적용하는 기회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균형 있게 제공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두문화인들이 사회 각 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적 역량의 개발 뿐 아니라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모국문화와 원어인 언어 교육에 중사하는 두문화활동가로 양성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가족들이 이주여성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모국인, 모국문화, 모국 가족들과의 접촉 및 교류를 지원하는 일은 모국문화정체성의 유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작용하여 한국문화정체성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유용한 자원을 양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연구는 이민 1세대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적응의 경험이 질적으로 다를 수 있는 여타 문화적 소수자들, 예를 들면, 난민과 이민자의 경계를 오가는 새터민, 체류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이 연구의 대상은 대도시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중 중국과 베트남 출신 여성들에 한정되어 연구결과가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이나 그 외 문화권 출신 여성들의 경험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고 편의표집되어 연구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연구설계 측면에서 보면 이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연구자가 분석결과를 논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증가나 감소를 의미하는 표현들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두문화정체성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그러한 자기개념이 결혼의 안녕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경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태도를 도울 수 있는 인지기제, 즉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경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외의 다양한 매개경로가 고려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두문화정체성이 부부의 갈등 인식과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혼의 안녕에 기여하는 경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모국문화정체성의 기능과 역할이 복잡한 점을 고려하면 보다 긍정적인 역할이나 또는 부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로가 잠재할 수도 있어 이들을 밝히는 후속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강점이자 심리적 자원이 될 수 있는 두문화정체성과 결혼안녕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최초로 시도된 연구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적절히 검토될 수 있도록 향후 이와 관련된 지식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

하며, 이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두문화인의 강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축적되어 다문화가족의 행복을 돕는 일에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 권복순. 2009. “한국어 능력, 자이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1(2): 5-32.
- 권복순·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217-252.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김오남.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이선·김민정·한건수. 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은. 2007. “적응과 세력화의 경계에 선 외국인 아내들: 농촌지역의 베트남 결혼이민자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미간행).
- 김현주·안현의. 2011.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157-174.
- 박주희·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박혜란. 1994. “구술사를 통해 본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 『여성학논집』 11: 11-55.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7. “다문화가족 지역정착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연구.”
- 서해정·김형모.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2): 359-389.
- 양순미·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옥경·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pp. 321-349). 서울: 한울출판사.
- 위훈. 2003.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이동원. 1988. “도시 부부의 결혼의 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근무·김진숙. 2009.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2.
- 이혜은. 2005. “한국 이주 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22(2): 107-143.

- 이혜경. 2005.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 『한국인구학』 28(1): 73-106.
- 정진경·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혜영·김진우. 2009. "베트남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화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29-55.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1(1): 163-194.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주부의 정착 지원방안 연구.
- 통계청. 해당연도 국제결혼 및 여성결혼이민자 통계(<http://www.kosis.kr>).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현경자. 2009. "역경 극복을 돕는 성인 한국인의 긍정성 탐색: 긍정적 태도 척도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2): 13-42.
- 현경자. 2010. "증도장애, 이혼과 같은 생애위기 경험자의 자기해석 복잡성과 심리적 안녕: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2(4): 193-222.
- 홍달아기·채옥희. 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지』 15(5): 729-74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pp. 243-277) Edited by G. Marcoulides and R. Schumacker.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net-Martínez, V., F. Lee, and J. Leu. 2006. Describe Your Culture: Cultural Representations in Bicultural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 386-407.
- Benet-Martínez, V., J. Leu, F. Lee, and M. Morris. 2002. "Negotiating Biculturalism: Cultural Frame Switching in Biculturals with Oppositional versus Compatible Cultural Identiti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 492-516.
- Berlin, S. 2002.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A Cognitive-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erry, J. and D. Sam.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Vol. 3, pp. 291-325) Edited by J. Berry, M. Segall, and C. Kagitcibasi. Boston: Allyn & Bacon.
- Booth, A., D. Johnson, and J. Edwards.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 Britto, P., and M. Amer. 2007. "An Exploration of Cultural Identity Patterns and the Family Context among Arab Muslim Young Adults in America." *Applied Development* 11: 137-150.
- Burpee, L. C. and E. Langer. 2005. "Mindful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Adult*

- Development* 12(1): 43-51.
- Buss, D. 1991. "Conflict in Married Couples: Personality Predictors of Anger and Upset." *Journal of Personality* 59: 663-688.
- Caughlin, J., T. Huston, and R. Houts. 2000. "How Does Personality Matter in Marriage? An Examination of Trait Anxiety, Interpersonal Negativ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26-336.
- Carson, S., and E. Langer.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 Behavior Therapy* 4(1): 29-43.
- Carver, C., and M. Scheier.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 Cheng, C. Y. 2005. "Bicultural Identities: Determinants, Processes, and Effec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Chuang, Y. 1999. "The Primary Model of Bicultural Competence and Bicultural Identity Development in a Taiwanese-American Family Lineage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Cohen, J., and P. Cohen.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rohan, S., and J. Veroff. 1989. "Dimensions of Marital Well-Being among White and Black Newlywe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373-383.
- Curran, P., S. West, and J. Finch.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Enders, C., and D. Bandalos. 2001. "The Relative Performance of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or Missing Data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 430-457.
- Fiske, A., S. Kitayama, H. Markus, and R. Nisbett. 1998. "Cultural Matrix of Social Psychology." (pp. 915-981).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Vol.2), Edited by D. Gilbert, S. Fiske, and G. Lindzey. Boston, MA: McGraw Hill.
- Ford, A. 2006. "The Bicultural Experience: Description and Theor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Fredrickson, B. 2000.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and Treatment* 3: 1-24.
- Gibson, M. 2001. "Immigrants Adaptation and Patterns of Acculturation." *Human Development* 44: 19-23.
- Gordon, M. 1964. *Assimilation in American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u, L., and P.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Impett, E., K. Beals, and L. Peplau. 2003. "Testing the Investment Model of Relationship Commitment and Stability in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Couples." In *Love, Romance, Sexual Interaction: Research Perspectives from Current Psychology* (pp. 163-181) Edited by N. J. Pallone.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Kitch, G. 1992.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Asserting a Biracial, Bicultural Identity." In *Racially Mixed People in America* Edited by M. Root. Thousand Oak, CA: Sage.
- Kline, R.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 Kurdek, L. A. 1994. "Areas of Conflict for Gay, Lesbian, and Heterosexual Couples: What couples Argue about Influences Relationships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24-934.
- Lafromboise, T., H. Coleman, and J. Gerton. 1993. "Psychological Impact of Biculturalism: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14: 395-412.
- Langer, E. 1989. *Mindfulness*. Cambridge, MA: Da Capo Press.
- Lippes, T. 1999. "Mutuality in Marriage: The Self-Esteem Connection, a Self-in-Relation Analysi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Chicago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 Long, E., and D. Andrews. 1990. "Perspective Taking as a Predictor of Marit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26-131.
- Nemecek, S., and K. Olson. 1999. "Five-Factor Personality Similarity and Marital Adjustment."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7: 309-318.
- Noh, E. 2004. "We Are All Bicultural: Different Ways of Integrating the Cultures Through the Experience of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Oetting, E. and F. Beauvais. 1991. "Orthogonal Cultural Identification Theory: The Cultural Identification of Minority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25: 655-685.
- Phinney, J.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from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156-176.
- Phinney, J., and M. Devich-Navarro. 1997. "Variations in Bicultural Identification among Af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1): 3-32.
- Plechaty, M. 1987. "Perceptual Congruence of Five Attitudes among Satisfied and Unsatisfied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61: 527-537.
- Roberts, R., J. Phinney, L. Masse, Y. Chen, C. Roberts, and A. Romero. 1999. "The Structure of Ethnic Identity in Young Adolescents from Diverse Ethnocultural Group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 301-322.
- Roysircar, G. 2003. "Understanding Immigrants: Accultur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ulture and Counseling: New Approaches* (pp. 164-185) Edited by F. Harper and J. McFadden.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Rudmin, F. 2003. "Critical History of the Acculturation Psychology of Assimilation, Separation,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7(1): 3-37.
- Ruvolo, A. 1998. "Marital Well-Being and General Happiness of Newlywed Couples: Relationships Across Tim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4): 470-489.
- Ryder, A., L. Alden, and D. Paulhus. 2000. "Is Acculturation Unidimensional or Bidimensional? A Head to Head Comparison in the Prediction of Personality, Self-Ident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1): 49-65.
- Santana, E. 2004. *Woven with Four Threads: A Tapestry on the Interrelatedness of Ethnic Identity, Language Use, Bicultural Stressors, and Anxiet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 Schumm, W., L. Paff-Bergen, R. Hatch et al. 1986.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81-387.
- Schwartz, S., B. Zamboanga, L. Rodriguez and S. Wang. 2007. "The Structure of Cultural Identity in an Ethnically Diverse Sample of Emerging Adult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9(2): 159-173.
- Snyder, C., C. Harris, J. Anderson, S. Holleran, L. Irving, S. Sigmon, L. Yoshinobu, J. Gibb, C. Langelle, and P. Harney.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Tajfel, H. 1982.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gney, J., R. Baumeister, and A. Boone.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2.
- Todd, A., G. Bodenhausen, J. Richeson, and A. Galinsky. 2011. "Perspective Taking Combats Automatic Expressions of Racial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6): 1027-1042.
- White, L. and A. Booth. 1991. "Divorce over the Life Course: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5-21.

Bicultural Identity and Marital Well-Being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Self-Positivity Derived from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as a Mediator-

Hyun, Kyoung-Ja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This questionnaire study examined the processes linking bicultural identity to self-positivity derived from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that, in turn, affects marital well-being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Data were drawn from 281 marriage immigrant women residing in large cities in Korea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area. Results of covariance structural analyses supported most study hypotheses: As predicted, bicultural identity contributed to self-positivity composed of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self-acceptance and self-regulation, and the self-positivity, in turn, promoted marital well-being, conceptualized as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Bicultural identity also showed a significant direct positive effect on marital well-being. In path analyses conducted with observed variables, Korean cultural identity and home cultural identity both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multiple perspective taking, through which these identity variabl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self-acceptance and self-regulation. While self-acceptance was, as expected, positively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thus indirectly promoting marital stability, the positive effect of self-regulation on marital stability was not significant.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was found to promote marital well-being through encouraging both self-acceptance and consensus with a spouse. The effect of Korean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well-being was found to be completely mediated by self-acceptance and consensus with a spouse fostered by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In contrast, the effect of home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well-being was partly mediated by such paths, and home cultural identity also had a positive direct effect on marital satisfaction and a negative direct effect on marital stability, suggesting its effect on marital well-being is complicated. Yet total effects of both types of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well-being turned out to be positive. These results suggest that bicultural identity, supposed to be a psychological strength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may indeed function as psychological resources that promote positive attitude as well as marital well-being. Finally,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are discussed.

Key words: Bicultural identity, Self-positivity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Marital well-being, Marital satisfaction

[논문 접수일 : 12. 02. 06, 심사일 : 12. 02. 14, 게재 확정일 : 12. 03. 13]